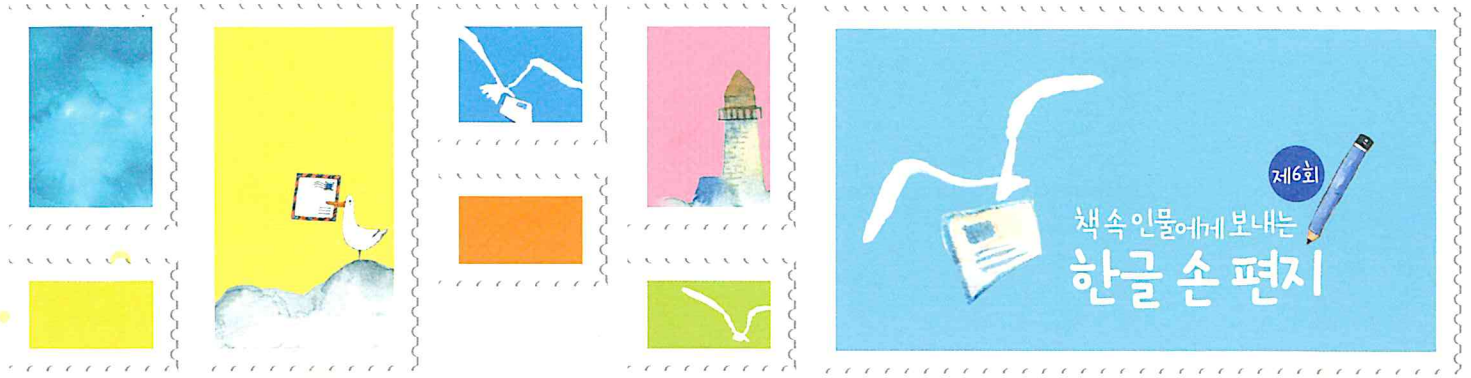


낫개야 반가워. 나는 손아린
 이야. 토끼야 니가 호박아주
 머니에게 은혜를 갚지 못해서
 엄마토끼와 울때 나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 나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집어만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나는 호박안에서 답답하지
 안았니? 내생각아는
 바깥은 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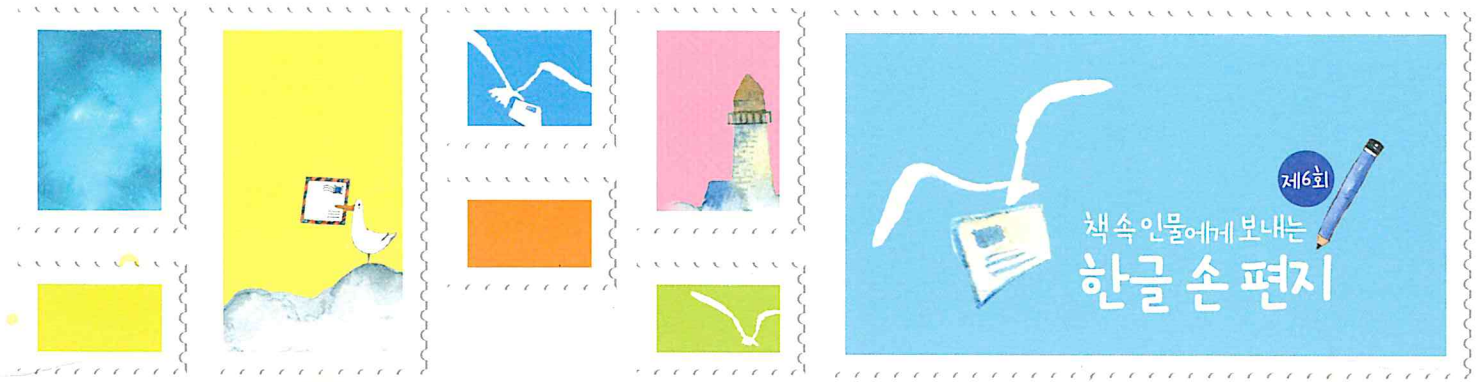


못해서 토끼너가 궁금하지
 안아던 거라고 생각해. 타는
 동생을 태권도이켜서 만나면
 너무 좋아. 너도 형제들을
 만났을때 기분이 좋지 안았
 니? 어떤 느낌이었니? 좋아했
 지? 넷째야 우리 다음에
 다시만나자. 안녕

2020년 8월 9 일

아린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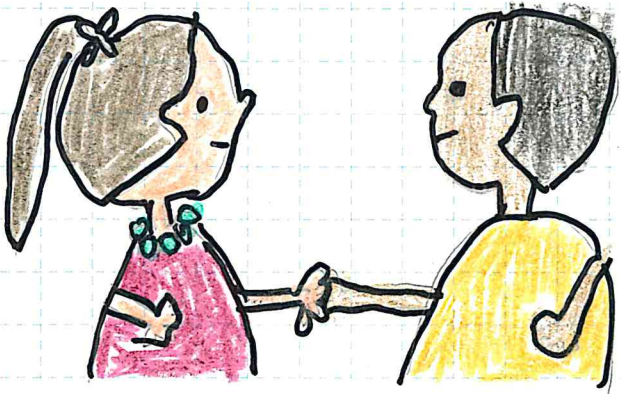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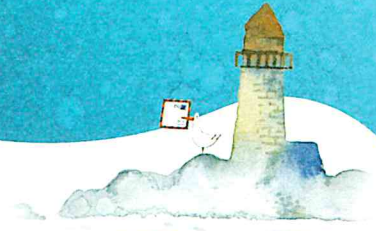


행복 버스를 타는 시제이에게

시제이야 안녕 반도 올이야 나도 너처럼 궁금한게 참 많아
 너희 할머니 참 좋더라. 너가 궁금해하는 건에 너무나
 예쁜 말로 대답해 주시잖아. 나도 너처럼 좋은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너희 할머니가 한말중에 이만너무
 좋더라 "시제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나 있단다. 늘 무
 심코 지나치다 보니 알아보지 못한 뿐이야." 나도
 너희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것은 알아보는 사람이 되거야
 나도 너랑 같이 행복 버스 타보고 싶다. 다음에 만나면
 같이 아름다운 것 찾기 시합하자. 그럼 안녕

2020년 8월 13일
 스물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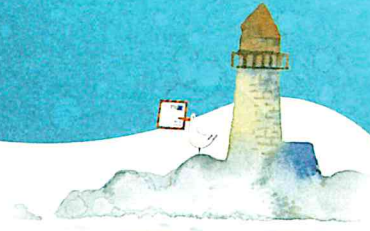


자렛에게 -

안녕, 자렛? 나는 한별 이라고 해.

책 재밌게 읽었어.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엄마, 아바랑 떨어져 살다니 대단하다. 고양이를 6마리나 키우는 거 부러워.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처음 수를 봤을 때 화나고 기분나빴는데 나중에는 둘이 귀한 친구가 된게 신기해. 네 엄마가 6마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작은 아기용 양말들을 보낸 게 재밌었어. 밤마다 누가 양말을 훔쳐 가도 양말을 계속 만들어서 걸어 놓는 장면을 볼 때, 자렛은 정말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양말 한 짝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도둑에게 양말을 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도둑이 허수아비여서 놀랐어. 30 형제라는 건 더 놀랐어. 네가 수에게 마녀라고 했다가 사실대로 말했잖아. 수가 화를 냈을 때 왜 마녀가 아니어서 화가 난 건지 이해가 안 됐어. 마녀가 아니면 그냥 '마녀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라면 자렛이 마녀이든 마녀가 아니든 신경쓰지 않았을 거야. 내가 토포즈 별장에 간다면 고양이, 자렛이랑 같이 놀고 헨티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꼭 애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토파즈 아죽머
니가 허브를 이용해 370 가지의 약을 만드는 방법을
책으로 쓴 거 힘들었을 것 같아. 네가 만든 약이
바보아 할머니와 잠을 자지 못하는 손님에게 도움이 되서
다행이야. 그러면 편지는 여기까지 쓸게.
안녕~

-한별 이가-

